

3 March

3.10(화) - 3.11(수) 8pm  
바비 맥퍼린 'Spirityouall'  
R 130,000 S 100,000  
A 70,000 B 40,000

3.13(금) 8pm  
더 식스틴  
R 80,000 S 60,000 A 40,000

4 April

4.4(토) - 4.5(일)  
토 3pm & 7pm, 일 4pm  
LDP 무용단 신작  
R 50,000 S 40,000 A 30,000

4.25(토) - 4.26(일) 토 7pm, 일 5pm  
한대수 콘서트  
'Reverse | Rebirth'  
R 100,000 S 80,000 A 50,000

5 May

5.7(목) 8pm  
로사스 무용단  
<로사스 댄스 로사스>  
R 80,000 S 60,000 A 40,000

5.9(토) - 5.10(일) 토 5pm, 일 3pm  
로사스 무용단 <드러밍>  
R 80,000 S 60,000 A 40,000

5.14(목) - 5.30(토)  
평일 8pm, 주말 2:30pm & 7pm  
5.18(월) 8pm, 5.25(월) 5pm  
(화요일 공연 없음)  
슬라바 풀루닌의 <스노우쇼>  
R 80,000 S 60,000 A 40,000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CoMPAS15

6 June

6.11(목) - 6.14(일)  
평일 8pm, 주말 3pm & 7pm  
오피스 어드벤처 <블램!>  
R 70,000 S 50,000 A 30,000

6.21(일) 5pm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  
R 80,000 S 60,000 A 40,000

9 September

9.11(금) - 9.12(토) 금 8pm, 토 3pm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Rice>  
R 70,000 S 50,000 A 30,000

9.17(목) - 9.19(토) 평일 8pm, 토 2pm  
로베르 르빠주 연출  
<바늘과 아편>  
R 80,000 S 60,000 A 40,000

9.22(화) 8pm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  
R 90,000 S 60,000 A 40,000

10 October

10.1(목) 8pm  
안네 소피 폰 오테 & 카밀라 탈링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2015.  
3. 10 - 12. 7

10.9(금) - 10.11(일) 금 7pm, 주말 3pm  
현대무용 프로젝트 <푸가> (카레)  
R 60,000 S 50,000 A 30,000

10.23(금) - 10.24(토) 금 8pm, 토 4pm  
데보라 콜커 무용단 <Mix>  
R 70,000 S 50,000 A 30,000

10.29(목) 8pm  
에벤 콰르텟  
R 80,000 S 60,000 A 40,000

11 November

11.5(목) - 11.18(수)  
화-금 8pm, 주말 3pm & 7pm  
김광보 연출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R 50,000 S 40,000 A 30,000

11.24(화) - 11.28(토)  
평일 7:30pm, 토 2pm  
나나가와 유키오 연출  
<해변의 카프카>  
R 80,000 S 60,000 A 40,000

12 December

12.7(월) 8pm  
파벨 하스 콰르텟  
R 80,000 S 60,000 A 40,000

LG Arts Center

LG ARTS CENTER CoMPAS15

CoMPAS  
15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 THEATRE

5.14(목) — 5.30(토) 평일 8pm, 주말 2:30pm & 7pm

5.18(월) 8pm, 5.25(월) 5pm (화요일 공연 없음)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SLAVA'S 'SNOWSHOW'

R 80,000 S 60,000 A 40,000

6.11(목) — 6.14(일) 평일 8pm, 주말 3pm & 7pm

오피스 어드벤처 <블램!> 'BLAM!'

R 70,000 S 50,000 A 30,000

9.17(목) — 9.19(토) 평일 8pm, 토 2pm

로베르 르빠주 연출 <바늘과 아편>

Ex Machina & Robert Lepage

'Needles and Opium'

R 80,000 S 60,000 A 40,000

11.5(목) — 11.18(수)

화-금 8pm, 주말 3pm & 7pm

김광보 연출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I was punched for sticking out slightly'

directed by KIM Kwang-Bo

R 50,000 S 40,000 A 30,000

11.24(화) — 11.28(토) 평일 7:30pm, 토 2pm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해변의 카프카>

'Kafka on the Shore' by Yukio NINAGAWA

R 80,000 S 60,000 A 40,000



## DANCE

4.4(토) — 4.5(일) 토 3pm & 7pm, 일 4pm

LDP 무용단 신작 New Creations by LDP

R 50,000 S 40,000 A 30,000

5.7(목) 8pm

로사스 무용단 <로사스 댄스 로사스>

Rosas 'Rosas danst Rosas'

R 80,000 S 60,000 A 40,000

5.9(토) — 5.10(일) 토 5pm, 일 3pm

로사스 무용단 <드러밍> Rosas 'Drumming'

R 80,000 S 60,000 A 40,000

9.11(금) — 9.12(토) 금 8pm, 토 3pm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Rice>

Cloud Gate Dance Theatre of Taiwan 'Rice'

R 70,000 S 50,000 A 30,000

10.9(금) — 10.11(일) 금 7pm, 주말 3pm

현대무용 프로젝트 <푸가> (가제)

Contemporary Dance Project

'Fugue: The Polyphony of the Bodies'

R 60,000 S 50,000 A 30,000

10.23(금) — 10.24(토) 금 8pm, 토 4pm

데보라 콜커 무용단 <Mix>

Companhia de Dança Deborah Colker 'Mix'

R 70,000 S 50,000 A 30,000

## CLASSICAL MUSIC

3.13(금) 8pm

더 식스틴 The Sixteen

R 80,000 S 60,000 A 40,000

6.21(일) 5pm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 Pianist Imogen Cooper

R 80,000 S 60,000 A 40,000

9.22(화) 8pm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 Sabine Meyer Trio

R 90,000 S 60,000 A 40,000

10.1(목) 8pm

안네 소피 폰 오테르 & 카밀라 킬링

Anne Sofie von Otter & Camilla Tilling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10.29(목) 8pm

에벤 콰르텟 Quatuor Ebène

R 80,000 S 60,000 A 40,000

12.7(월) 8pm

파벨 하스 콰르텟 Pavel Haas Quartet

R 80,000 S 60,000 A 40,000



## JAZZ/FOLK ROCK

3.10(화) — 3.11(수) 8pm

바비 맥퍼린 'Spirityouall'

Bobby McFerrin 'Spirityouall'

R 130,000 S 100,000 A 70,000 B 40,000

4.25(토) — 4.26(일) 토 7pm, 일 5pm

한대수 콘서트 'Reverse | Rebirth'

HAHN Dae-Soo 'Reverse | Rebirth'

R 100,000 S 80,000 A 50,000



패키지  
티켓 오픈

2015.  
1.20(화)  
9am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은 패키지가 진리!

### CoMPAS 패키지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옥같은 공연들,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역시 패키지입니다!

- 패키지 카드 발급  
카드 제시 시,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패키지 구매자 동행인 할인  
패키지 구성 공연 대상, 1인 2매까지  
20% 동행인 할인 제공

둥치면 싸다!

### 몽싸 할인

- <스노우쇼>, <블랙!>, <살짝 넘어갔다가...> 중  
동일 회차 R석 4매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스노우쇼> 가족 할인: 4인 이상 가족,  
동일 회차, 동일 등급 관람 시 25% 할인
- <블랙!> 직장 동료 할인: 직장 동료 6인 이상  
동일 회차, 동일 등급 관람 시 25% 할인

개별  
티켓 오픈

2015.  
1.23(금)  
9am

젊음을 누려라!

### 청년 할인

-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  
(미지참 시 차액 지불, 소급적용 불가)

빨리 잡은 좌석이 가격도 싸다!

### 조기예매 할인

- 개별 공연 티켓 오픈과 함께 단 한 달 동안  
적용되는 10% 할인
- 기간: 2015. 1. 23(금) - 2. 23(월)

기획공연 상시 할인은 신한카드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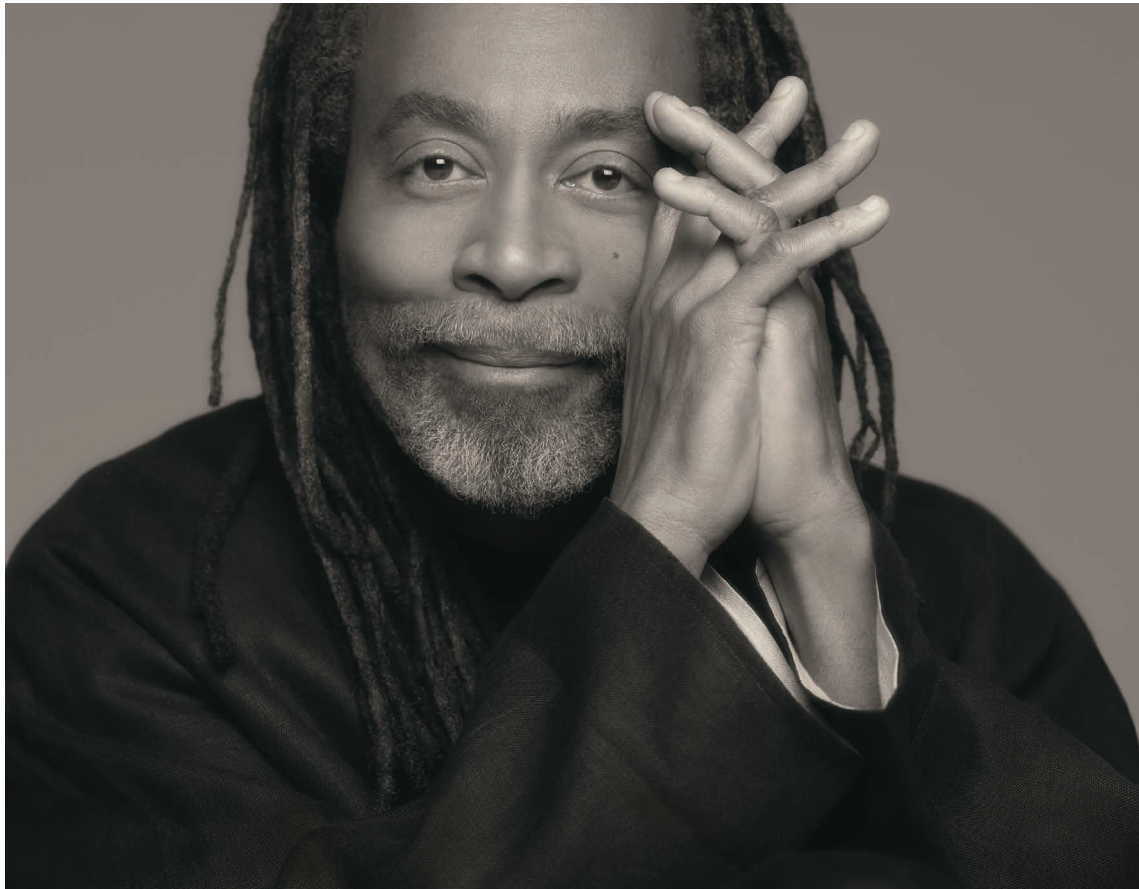
### 신한카드 10% 할인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결제 시 10% 할인  
(중복할인 적용 불가)

#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 2015. 3. 10 — 12. 7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CoMPAS15



© Carol Friedman

**바비 맥퍼린**  
**'Spirityouall'**

**Bobby McFerrin**  
**'Spirityouall'**



**영혼의 행복을 부르는**  
**목소리의 마술사**

목소리 하나로 전세계를 행복에 빠지게 만드는 보컬의 초인(超人)이자, 네 옥타브를 순식간에 넘나들며 오케스트라보다 더 다양한 사운드로 인간 목소리의 무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슈퍼스타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이 돌아온다.

1988년 발매한 "Don't worry, be happy"로 전세계를 강타한 후에도 바비 맥퍼린은 첼리스트 요요 마, 재즈 피아니스트 칩 코리아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협업 뿐 아니라 베를린 필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실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예술적 모험을 펼쳐가고 있다.

세계적인 성공 후에 자신의 음악적 뿌리로 돌아가보고 싶었던 맥퍼린은 2013년 발매한 앨범 <Spirityouall>을 통해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흑인 영가, 민요 등을 재해석하여 수록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음악 속에서 영적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앨범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주역을 맡았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맥퍼린(Robert McFerrin)을 기리는 것으로 그에게 더욱더 각별하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바비 맥퍼린은 이 앨범의 곡들을 주 레퍼토리로 선보일 예정이며, 그를 포함하여 드럼, 더블 베이스, 기타, 피아노, 백그라운드 보컬까지 총 7명의 밴드가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것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관객과 호흡하는 즉흥 연주 역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한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담백하면서도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관객들의 몸과 마음, 정신을 힐링시켜 줄 목소리의 마술사 바비 맥퍼린. 그는 다시 한번 목소리로 삶의 긍정과 행복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것이다. 마치 "Don't worry, be happy"라고 속삭이듯!

Bobby McFerrin, a ten-time Grammy Award winning vocal virtuoso renowned for his distinctive and original style, is making his welcome return to Korea in three years. His return concert will include songs from his latest album 'Spirityouall' released in 2013, which features classic black spirituals full of musical strength that emphasizes on joy, persistence, and redemption; powerful musical messages that celebrate the resilience of our human lives and how we adapt to overcome its struggles. Joined by seven band members on drums, double bass, guitar, piano, and background vocals, McFerrin once again will help us cherish our lives with the soothing and healing power that his magical voice delivers.

**“바비 맥퍼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신의 관객을 축복 받은 사람들로, 콘서트장을 놀이공원이자 기쁨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있다.”**

LA 타임즈

**3. 10** tue —  
**3. 11** wed

8pm

R 130,000  
S 100,000  
A 70,000  
B 4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없음  
**Duration**  
2hrs.  
without an interval



# 더 식스틴

# The Sixteen



## 순수한 영혼을 담아낸 최정점의 목소리



© Molinavisuals

영국의 유서 깊은 합창 전통의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더 식스틴(The Sixteen)이 처음으로 내한하여 아카펠라 종교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1979년 옥스포드에서 지휘자 해리 크리스토퍼스(Harry Christophers)가 16명의 친구들과 16세기 르네상스 음악을 연주하면서 지금의 더 식스틴이 잉태된 이후 지난 36년간 차곡차곡 레퍼토리를 넓혀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물론 21세기 음악까지 섭렵하고 음악적 깊이를 더해 지금은 18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까지 갖춘 앙상블로 성장했다. 더 식스틴의 지고지순한 음색과 신중하게 직조하는 성부의 진행, 그리고 과장 없이 균형 잡힌 연주는 특히 성스러운 종교음악에서 빛을 발하며 지금까지 수 차례의 그라모폰상, 독일음반비평가상, 황금디아파종상을 수상하는 등 영국을 넘어 폭넓은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2000년부터 매년 주제를 정해 영국 전역에 있는 20여 개의 유서 깊은 성당을 직접 돌며 종교음악의 정수를 펼치는 “합창 순례(Choral Pilgrimage)”는 더 식스틴이 음악을 통해 영국 곳곳의 관객들에게 영혼이 말끔히 정화되는 희열의 순간을 선사하는 뜻깊은 프로젝트로서 해마다 주목 받고 있다.

더 식스틴의 첫 내한도 이 “합창 순례”와 맥을 같이 한다. ‘음악의 왕자’, ‘교회음악의 구세주’라 불리며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팔레스트리나의 모테트와 스타바트 마테르,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너무 아낀 나머지 악보의 외부 유출을 막아 18세기 후반까지 오로지 시스티나 성당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알레그리의 저 유명한 “미제레레”, 여기에 수백 년 전의 정결함을 거울처럼 비추는 우리 시대 작곡가 제임스 맥밀란의 모테트와 “미제레레”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세상 가장 감동적인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에 실린 깊은 영혼의 울림을 통해 피로에 지친 우리의 삶이 위로와 희망으로 채워지는 귀중한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The Sixteen, the leading British choral ensemble, comes to Korea for the first time accompanied by its founder and conductor Harry Christophers CBE. Most famous for performing masterpieces of the Renaissance polyphony and introducing the modern diversity of the 20th and 21st century music during their 36 years of history, the Sixteen's first concert in Korea will feature Palestrina from the 16th century, James McMillan from the 21st century, as well as Allegri, the composer of Miserere, perhaps the most famous and widely accepted sacred music in history.

“해리 크리스토퍼스는 언제나처럼 아주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더 식스틴의 성악가 18명은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디션과 흠잡을 데 없는 인토네이션으로 무결점 연주를 들려주었다.”

가디언, 영국

- \* 2009 그라모폰상 ‘올해의 아티스트’ & ‘베스트 바로크 성악 음반’ 수상
- \* 2012 미렘 클래식 어워드 ‘고음악(Early Music)’ 부문 수상

**프로그램**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팔레스트리나 미사 “레지나 첼리”, 스타바트 마테르, 모테트 “솔로몬의 노래” 중
- 알레그리 “미제레레”
- 제임스 맥밀란 “미제레레”, 스트라스클라이드 모테트 중



© KIM Doo-Young

## LDP 무용단 신작

## New Creations by LDP



## 넘치는 패기와 폭발하는 에너지 가장 반짝이는 지금의 LDP를 만나라!

2001년 창단 이후 오직 춤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으로 현대무용단으로서의 쉽지 않은 15년의 역사를 개척해온 LDP(Laboratory Dance Project). 이들은 자유롭고 세련된 현대무용의 매력을 다채롭게 표출해내며 LDP의 공연은 믿고 볼 수 있다는 관객들의 신뢰, 그리고 저마다 탁월한 실력과 뚜렷한 개성을 지닌 무용수들에 기반한 엄청난 팬덤을 쌓아왔다.

초반에는 차진엽, 이용우, 김영진, 김성훈 등 내로라하는 무용수들의 활약으로 한국 무용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춤 잘 추기로 유명한 차세대 인재들이 대거 모여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면서 한국 현대무용의 저력을 상징하는 브랜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해온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이번에 선보일 이들의 공연은 두 편의 신작으로 구성되는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발레단에 자신의 안무작 <Platform>과 <No Comment>를 레퍼토리로 수출하며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신창호와 현재 프랑스의 엠마누엘 갓 컴퍼니에서 활동하며 무용수와 안무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판선, 이 두 사람이 가장 신선한 감각을 발휘해 새로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댄싱 9> 시즌 1과 시즌 2에서 놀라운 기량으로 명장면을 만들어내면서 대중적으로도 널리 이름을 알린 이선태, 류진욱, 안남근, 윤나라, 임삿별 등이 출연해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한다. LDP, 이들이 가진 젊음과 자유 그리고 열정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전보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완성도 있는 무대, 이들의 예술혼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LDP(Laboratory Dance Project), founded in 2001, is comprised of some of the most boldly creative young dancers and choreographers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mphasizing physically-charged, acrobatic works, the group has been taking credit for popularizing the contemporary dance genre among young generation and for propelling its versatile dancers to stardom. LDP's first collaboration with LG Arts Center will offer an evening of two fabulous new pieces choreographed by SHIN Chang-Ho and KIM Pansun. A cutting-edge double-bill of work by two contrasting artists with distinctly different styles, both will highlight the incredible talents, passion and energy of LDP's dancers.

“엣지 있다’란 말,  
이럴 때 쓸 게다.  
그(신창호)의 춤은 강렬하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섹시하다.”

중앙일보

4.4 sat —  
4.5 sun

sat 3pm & 7pm  
sun 4pm

R 50,000  
S 40,000  
A 30,000

제작 LG아트센터  
Produced by  
LG Arts Center

1부. 김판선 안무 <12Mhz>(가계)  
출연: 강혁, 길서영, 김성현, 류진욱,  
안남근, 양지연, 위보라, 이경진,  
이선태, 이주미, 임삿별, 임종경

2부. 신창호 안무 <Graying>  
출연: 강혁, 김성현, 류진욱, 안남근,  
윤나라, 이선태, 임종경, 천종원

※작품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ho Sang-Ho

## 한대수 콘서트 'Reverse | Rebirth'

## HAHN Dae-Soo 'Reverse | Rebirth'



### 음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꿈꿨던 한국 포크 음악의 거인

한국 최초의 포크 록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평가 받는 전설적인 뮤지션 한대수가 처음으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바람과 나', '행복의 나라로'와 같이 한국 음악사에 명곡으로 기록되고 있는 곡들을 모두 18세에 작곡했던 이 천재 음악가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음악을 통해 암울했던 한국 사회를 향한 자유와 혁명의 외침을 울려 퍼트렸고, 그의 이러한 음악 정신은 이제 수많은 후배 뮤지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어 여전히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대수가 한국포크 록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한대수는 한국 현대사를 반영하듯 롤러코스트와도 같은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촉망받던 핵물리학자였던 아버지는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가 17년만에 발견되었고, 그런 아버지를 찾아 미국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후 스무살에 귀국해 '물 좀 주소', '바람과 나'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 등이 담긴 기념비적인 앨범 <멀고 먼 길>(1974)을 발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데뷔했다. 하지만 이듬해 2집 <고무신>(1975)이 '체제 전복을 꾀하는 음악'이라는 이유로 전량 회수되자 상심 속에 다시 한국을 떠나게 된다. 14년이 지나 민주화의 훈풍을 타고 그의 음반이 해금되자 3집 <무한대>(1989)로 컴백, 이후 꾸준히 창작열을 불태우며 12집 <욕망>(2006)에 이르기까지 총 열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그의 모든 음반을 담은 앨범, <The Box>(2005)를 발매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는 1월, 첫 음반을 낸 지 40주년을 맞은 한대수의 음악적 성취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후배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리뷰트 음반을 발표하고, 이어 4월 25일과 26일, 2회에 걸쳐 LG아트센터에서 한대수 밴드와 그의 후배 음악인들이 출연하여 그의 음악과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한다. 삶과 음악이 하나였고, 목소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한국의 유일무이한 히피 뮤지션 한대수. 억압의 시대에서 자유와 사랑을 외쳤던 그의 거침 없는 목소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줄 것이다.

HAHN Dae-soo, the towering figure in the Korean folk rock history, takes the LG Arts Center stage for the first time in April. His sensational debut album Long Long Road(1974) containing his signature songs, 'Give Me Some Water', 'The Nation of Happiness' is acclaimed to have set the historical starting point of folk rock in Korea. Unfortunately, after the release of his second album Rubber Shoes (1975), HAHN's music was banned for more than a decade by the government that regarded his songs as anti-government. However, HAHN's contributions are now all rewarded in today's liberal political climate by so many star musicians of the next generations who are greatly influenced by his music, and the concerts in April will also feature some of these artists in a tribute to HAHN's musical achievements.

4.25 sat —  
4.26 sun

sat 7pm  
sun 5pm

R 100,000  
S 80,000  
A 50,000



벨기에, 로사스 무용단  
 <로사스 댄스 로사스>  
 <드러밍>

Rosas  
 'Rosas danst Rosas'  
 'Drumming'



Drumming 1998 © Herman Sorgelbos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현대무용의 전설적인 두 작품!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세계 공연예술계를 독주해나가고 있는 벨기에의 예술가들. 그 대열의 맨 앞에 있는 안무가가 바로 안느 테레사 드 케어르스마커(Arne Teresa de Keersmaecker)다. 1982년 겨우 스물 두 살의 나이에 <Fase>를 발표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세계 무용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녀는, 그 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으로 움직임의 구조와 패턴을 탐구하며 그 안에 감정과 메시지까지 뚜렷이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왔다. 이로써 '무용의 미니멀리즘'을 확립하며 세계 현대무용사에 큰 획을 그은 안느 테레사, 그녀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 주었던 전설적인 작품 두 편이 드디어 한국 관객들을 찾아온다.

먼저 소개되는 <Rosas danst Rosas(로사스는 로사스를 춤춘다)>는 4명의 여성 무용수를 위한 작품으로 1983년 Rosas 무용단의 창단과 동시에 발표되었다. 하나 하나 치밀하게 구성된 총 5개의 섹션 중에서도 긴박한 리듬을 타고 격렬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의자 위의 춤'으로 특히 유명한 이 작품은, 초연 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강렬함과 현대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로사스 최고의 인기 레퍼토리로써 아직도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인 <Drumming(드러밍)>(1998)은 미니멀리즘 음악가인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가 작곡한 동명의 곡에 붙인 것으로 하나의 리듬 모티프에 맞춰 시작된 움직임 프레이즈가 시공간을 따라 끝없이 변주, 발전되어가는 작품이다. 안느 테레사의 특징인 음악과 무용의 완벽한 결합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힘차게 울리는 퍼커션의 반복적인 리듬에 따라 고동치는 무용수들의 맥박까지도 실감나게 전해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용돌이치는 삶의 에너지와 무용을 보는 희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전설은 그저 전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Anne Teresa De Keersmaecker, along with her Belgium-based dance company Rosas, revisits two of her iconic early pieces. 'Rosas danst Rosas' is her female-quartet work to mark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Rosas in 1983. What is widely-viewed today as a seminal work of art for its rhythmic complexity, stylized minimalism, nuanced feminism, and choreographic rigor, the piece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several generations of dance creators in the world. The other piece, 'Drumming'(1998) is undoubtedly considered to be one of her most fascinating choreographic works. Set to a powerful score for percussion by the American minimalist Steve Reich, it features a wave of pure dance and pure sound as well as a vortex of life energy.

“안느 테레사를 단숨에  
 현대무용의 새로운 추진력으로  
 끌어올린 작품” 뉴욕 타임즈, 2014

“원자 단위의 정밀함과 날것의  
 에너지가 결합된 <드러밍>.  
 가히 20세기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가디언, 2013 ★★★★★

로사스 댄스 로사스(Rosas danst Rosas)

5.7 thu

8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1시간 45분, 휴식 없음  
 Duration  
 1hr 45mins.  
 without an interval

드러밍(Drumming)

5.9 sat —  
 5.10 sun

sat 5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60분, 휴식 없음  
 Duration  
 60mins.  
 without an interval





© Veronique Vial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SLAVA'S  
'SNOWSHOW'



아직도 보지 못했는가  
〈스노우쇼〉가 돌아온다!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으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것들이다.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 동화책 속에서 나온 듯한 알록달록 귀여운 장난감, 온종일 해도 지치지 않는 눈싸움,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며 늦은 밤 혼자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이 온몸의 세포를 일깨우며 행복감을 준다. 바로 이런 장면들을 모아 지난 날의 추억과 사랑과 우수를 불러내며 지난 네 차례의 LG아트센터 공연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노우쇼〉가, 9년 만에 다시 한번 폭풍 감동을 몰고 올 예정이다.

1993년 초연된 〈스노우쇼〉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100여 개 도시, 수천만 관객의 마음을 홀린 작품.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서면 무대는 물론 객석 구석구석에 수북이 쌓인 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노란색 포뮬 자루 같은 옷을 입고 빨간색 큰 코를 가진 광대가 이끄는 환상과 동화의 세계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마치 무성 영화 속의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8명의 광대들은 아무런 대사 없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짧은 에피소드들을 단순한 오브제와 음향 효과, 음악, 조명 같은 무대 장치들을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어떠한 테크닉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눈부신 스펙터클을 펼쳐 보인다. 특히, 이 작품의 백미는 객석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엔딩 장면으로, 〈스노우쇼〉를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명장면이다.

짧은 순간이라도, 인생의 모든 걱정을 내려 놓고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스노우쇼〉를 만나보자. 공연장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우리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The global mega-hit entertainment production, 'SLAVA'S SNOWSHOW', returns to LG Arts Center for its fifth magical year. It is a show unlike anything else you have ever seen before; a world in which a cobweb envelops the audience and one tiny piece of paper sets off a heart-stopping snow blizzard on stage. Combining amusement and poignancy with stunning, breathtaking spectacles, this classic show offers fun and joy for families as well as theater lovers of all ages. Recommended for ages 7 and above, this is definitely the show not to miss.

“1년에 단 하나의 공연을 본다면, 가족과 함께 〈스노우쇼〉를 보기를 권한다.”

헤럴드, 오스트레일리아

“가슴을 어루만지는 감동과 배꼽이 빠질듯한 웃음이 공존하는 작품”

뉴욕 타임즈

5. 14 thu —  
5. 30 sat

weekdays  
8pm  
weekends  
2:30pm & 7pm

\* 5.18(mon) 8pm  
5.25(mon) 5pm  
\* No performance  
on tuesdays

R 80,000  
S 60,000  
A 40,000

관람 가능 연령  
7세 이상  
Recommended for children  
of 7 years-old and over

공연 시간  
85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85mins. incl. an interval

가족 할인

동일 회차, 동일 등급  
4인 이상 가족 관람 시 25% 할인  
단, 현장에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함

SLAVA'S SNOWSHOW by  
arrangement with SLAVA and  
Gwenael Allan  
www.slavasnowshow.com  
Created and staged by Slava Polunin

# 오피스 어드벤처 <블램!>

## 'BLAM!'



답답한 사무실 속  
반란을 꿈꾸는 이들이여,  
오늘은 '블램'이다!



© Søren Meisner

하루 종일 사무실에 콕 박혀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는 당신. 여기 덴마크에서 날아온 신출귀몰 네 명의 남자가 당신의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을 탕(Blam!)하고 저격한다. 컴퓨터, 메신저, 스탠드, 복사기, 연필, 스테플러, 스탬프, 정수기..... 틀에 박힌 듯 늘 똑같은 사무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와 놀랄 만큼 재빠른 몸놀림만 있다면 누구라도 SF 액션 영화의 멋진 주인공을 꿈꾸지 말란 법 없다. 좁은 사무실 파티션 안에서 예민하고 까다로운 상사의 눈을 피해 깨알같이 탄짓과 공상을 일삼는 이들의 뇌 구조엔 오직 즐거움과 신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다. 다이하드, 터미네이터, 헐크, 에일리언, 람보... 허우대 멀쩡한 남자들이 저마다 색다른 개성을 발휘해 마치 영화 속 영웅이라도 된 듯 사무실 안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블록버스터급 해프닝들은 황당하기 그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을 불러 일으키며 순도 100%의 웃음을 연발로 탕탕 터뜨린다.

덴마크의 피지컬 씨어터 극단인 니앤더(Neander)가 모두에게 친숙한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 캐릭터와 오피스물을 재치있게 버무려 탄생시킨 <블램!>은 2012년 말 코펜하겐에서 초연된 후 2013년 8월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고, 그 해 10월 곧바로 런던 웨스트엔드에 입성해 매진을 이어간 작품이다. 또한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유럽 각지를 투어하며 관객들의 열광을 이끌어내면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자리잡았다. 북유럽 출신의 멋진 마스크와 더불어 아크로바틱한 액션까지도 매끄럽게 소화해내는 유연한 신체, 대사 없이도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탁월한 표현력으로 전세계 관객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해온 이들 네 명의 남자 배우들은 세계에서 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는 한국의 관객들을 찾아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엄청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바빠서 가족과 서먹해진 아빠가 있다면 아들의 손을 잡고,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 여성들은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하루 정도는 <블램!>이 주는 웃음에 과감히 투자해 보자!

To escape the boredom of their 9-to-6 jobs, four ingenious office workers invent BLAM! - an imaginary game where ordinary life is put through the shredder. The game becomes a hilarious, explosive and dangerous past-time as their everyday workplace is transformed into a world of aliens, superheroes and classic blockbuster movie villains. Created by Neander, the Danish physical theatre company, BLAM! was a huge hit at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2013 and played to packed houses in London's West End and major cities of Europe. A wordless performance, BLAM! gives audiences an imaginative, action-packed and highly entertaining experience, taking physical theater to new heights of innovation.

“불가능할 것만 같은  
놀라운 몸놀림에  
눈이 번쩍 뜨이는 공연”

인디펜던트, 영국 ★★★★★

“엄청난 재미와 정신을  
쓱 빼놓는 판타지. 사무실이  
전쟁터가 되었다가 정글,  
우주 공간으로 변신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

6. 11 thu —  
6. 14 sun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75분, 휴식 없음  
Duration  
75mins.  
without an interval

**직장 동료 할인**

동일 회사, 동일 등급  
6인 이상 관람 시 25%  
단, 현장에서 명함이나 사원증 제시

제작 크리스티안 잉기마르손 /  
덴마크 니앤더 극단  
Created by Kristján Ingimarsson /  
Neander, the Danish Physical  
Theatre Company



#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

# Pianist Imogen Cooper



시(詩)를 읊듯  
슈베르트를 노래하다



© Keith Saunders

리히테르, 루푸, 브렌델, 페라이어 등 널리 알려진 슈베르트 피아노곡의 대가들 속에서 '숨은 명연'의 주인공으로 애호가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영국의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Imogen Cooper)가 처음으로 한국 팬을 만난다.

이모젠 쿠퍼는 천재 연주자로 어린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나 이름을 날린 케이스라기보다는 서서히 무르익어 탄탄하게 구축한 자신의 음악세계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핵심을 파고들면서 누구보다 마음 깊이 와 닿는 연주를 펼치는 연주자로 사랑 받고 있다. 특히 쿠퍼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우리시대 거장 피아니스트인 알프레드 브렌델(Alfred Brendel)을 찾아가 슈베르트를 배우며 철저한 악보 분석은 물론이고 곡에 담긴 가장 내밀하고 심오한 정서까지 담아내는 해석으로 진화시킨, 시적이면서도 사색적인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높다. 2009-10년에 라이브로 녹음하여 3집에 걸쳐 내놓은 쿠퍼의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와 소품들은 "쿠퍼를 위대한 슈베르트 해석자의 반열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다"(그라모폰)는 찬사를 받으며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의 슈베르트 컬렉션에 추가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는 이모젠 쿠퍼의 첫 국내 무대에서 바로 그 명연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밝고 경쾌한 "12개의 독일 춤곡"을 비롯하여 슈베르트가 말년에 남긴 위대한 세 곡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중 A장조 소나타(D.959), 그리고 쿠퍼가 최근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는 슈만과 쇼팽의 명곡들을 그녀만의 서정적이고 고결한 피아노 연주로 만나며 깊은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British pianist Imogen Cooper gives her first recital in Korea in June. Widely known as a specialist in Viennese classic repertoire with her exceptional poetry, Cooper has established herself as one of the greatest Schubert interpreters on par with the likes of Alfred Brendel or Radu Lupu. In her first solo recital in Korea, she will perform one of Schubert's late great piano sonatas, D.959 and 12 Deutsche Tänze as well as Chopin and Schumann.

“이미 뛰어난 슈베르트 녹음과 연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이모젠 쿠퍼 만큼 음악을 깊이 느끼고 열정적으로 임한 연주는 거의 없다.” 그라모폰

“이모젠 쿠퍼는 현역 최고 피아니스트 중 한 명..... 가서 들으라, 그리고 이보다 나은 피아니스트가 몇 명이나 될는지 생각해보라.”

데일리 텔레그래프





© LU Chen-hsiang

##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Rice>

## Cloud Gate Dance Theatre of Taiwan 'Rice'

fri 8pm  
sat 3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70분, 휴식 없음  
Duration  
70mins.  
without an interval



## 세계 무용계를 사로잡은 린 화이민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증명하다

1999년 피나 바우쉬, 지리 킬리안, 머스 커닝햄, 윌리엄 포사이드와 함께 '댄스 유럽'이 선정한 '20세기의 위대한 안무가', 2000 리옹 댄스 비엔날레 '최고의 안무가', 미국 뉴욕 타임즈 선정 '2003 최고의 무용 작품', 2006 독일 최고 권위의 평론지 '발레 탄츠-테아터 호이테' 선정 '최고의 안무상', 2013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 '평생공로상'..... 이렇게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대단한 업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는 바로 이웃 나라 대만이 배출한 세계적인 안무가 린 화이민(林懷民)이다. 1973년 중국어권 최초의 현대무용단인 클라우드 게이트(雲門舞集)를 창단한 린 화이민은 이후 동양의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철학적, 미학적인 움직임들을 현대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법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의 관객들과도 성공적으로 소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왔다. 그가 무려 12년만에 다시 내한해 선보일 작품은 지난 2013년 무용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대작 <Rice>다. 쌀은 아시아인에게 단순한 양식을 넘어 문화이자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그는 무용수들과 함께 대만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남동부 초상(池上)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농사에 참여하며 받은 영감을 작품에 담아냈다. 그 결과 <Rice>는 단순히 쌀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시간의 흐름, 이와 어우러진 우리 삶에 대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보드라운 진흙 위에 잔잔히 고인 물의 떨림, 바람에 굽이치는 푸른 벼의 물결, 불타오를 듯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알곡들..... 프로젝션을 통해 수십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자연의 풍광을 배경으로 느리면서도 힘이 있고, 빠르지만 진중하게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다채로운 움직임들은 무대 위에 그야말로 장관을 빚어낸다. 단순해서 더욱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과 풍경, 소리들을 깊이 있는 호흡과 순수한 에너지로 포착해 보는 이들을 힐링시키는 린 화이민의 안무 미학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세계 무용계의 중심에 자리잡은 아시아 현대무용의 놀라운 저력을 그를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Heralded as "the most important choreographer in Asia", LIN Hwai-min often draws his initial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Asian culture and aesthetics, but he doesn't stop there. With dancers trained in meditation, Qigong, internal martial arts, modern dance and ballet, his Cloud Gate Dance Theatre of Taiwan transforms the ancient aesthetics into thrilling modern celebrations of motion. Now, for the first time since 2003, LIN returns to Seoul and stages his recent production, 'Rice'. Inspired by the captivating paddy fields in Taiwan's Chihshang, the dance epic is a remarkable tribute to the land and nature, and also celebrates the 40th anniversary of Cloud Gate. The production pairs breathtaking images with a poignant view of seasonal life to touch the heart.

“클라우드 게이트의 매력은  
마법 같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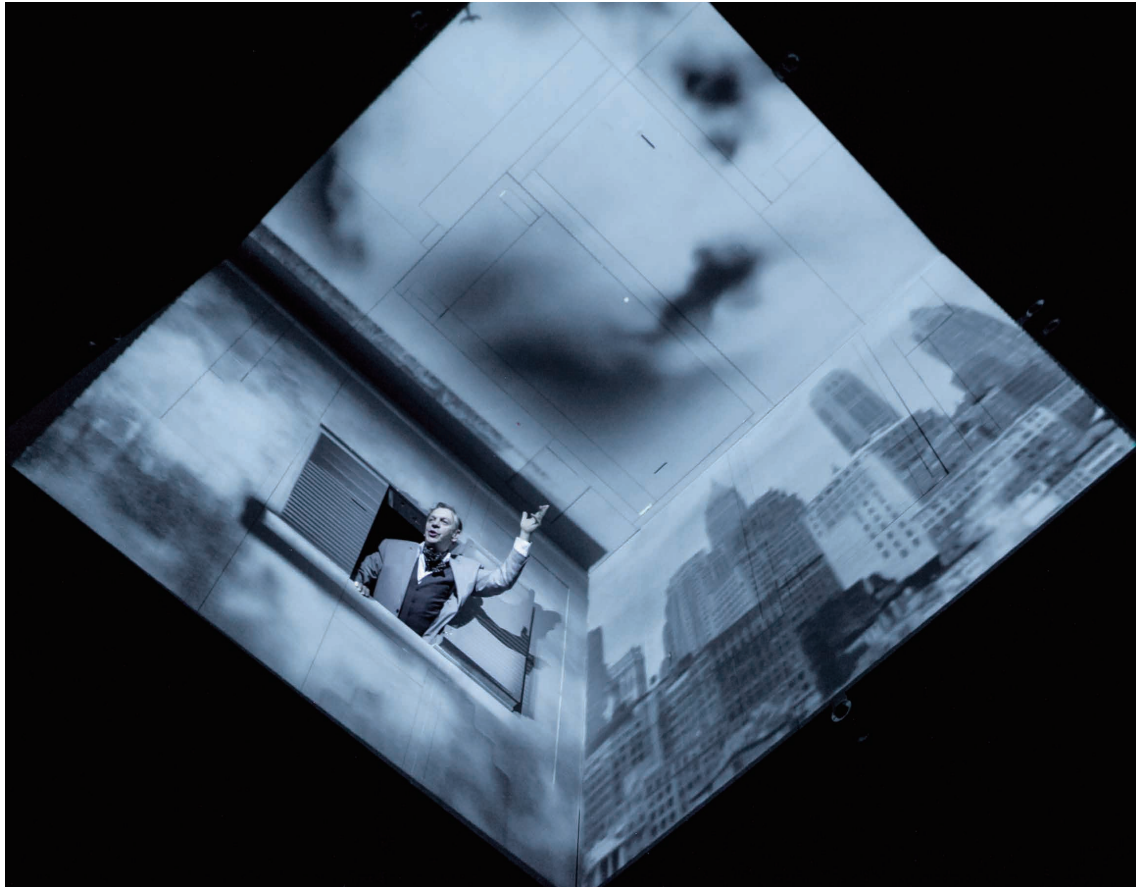
탁임 아웃

# 로베르 르빠주 연출 〈바늘과 아편〉

## Ex Machina & Robert Lepage 'Needles and Opium'



독창적이고 정교한  
천재 연출가 로베르 르빠주의  
기념비적인 작품



© Nicola-Frank Vachon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인 <달의 저 편>(2003)과 <안데르센 프로젝트>(2007)는 멀티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놀라운 무대 연출로 한국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작품이다. 연출가의 이름만으로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천재 연출가 로베르 르빠주가 돌아온다.

이번에 내한하는 <바늘과 아편(Needles and Opium)>은 1991년 초연되어 르빠주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며, 그를 현대 연극사에 우뚝 서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르빠주는 이 작품을 2013년 새롭게 재창작하여 캐나다 퀘벡에서 발표하였는데 초연 후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르빠주 스타일의 극단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내며 현재 세계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바늘과 아편>은 프랑스의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장 콕토와 미국의 유명한 재즈 트럼피터 마일즈 데이비스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배우 로베르, 이렇게 세 남자의 사랑, 중독,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89년 어느 날, 로베르는 프랑스 샹송 가수 줄리엣 그레코(Juliette Greco)와 마일즈 데이비스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파리에 와 있다. 그리고 마일즈 데이비스가 1940년대 파리에 머물 때 썼던 호텔방에서 꿈인지 무의식의 세계인지 모를 곳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르빠주 작품의 백미는 이 이야기를 놀라운 비주얼 시퀀스로 풀어놓는 데 있다. 정육면체를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무대 세트는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극이 시작되면 무대가 회전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뉴욕의 밤거리, 파리의 재즈 클럽,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로 변신을 거듭하며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한다. 초연 당시, 실연에 빠져 있었던 르빠주의 자전적 스토리를 반영했다고 전해지는 <바늘과 아편>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눈부신 일러전을 만들어내는 연극의 마술사 로베르 르빠주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Theatrical wizard Robert Lepage brings his mesmerizing production, 'Needles and Opium', to Korean audiences. Through highly visual staging, which is as much magical as it's many theatrical components, Lepage remounts the show after twenty years of its first production. 'Needles and Opium' explore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displacement, drug addiction and creative drive. Revealed through the lives of Parisian poet and filmmaker Jean Cocteau, American jazz legend Miles Davis and Lepage's own journey, this work is brilliantly conceived and astonishingly performed. This is a welcome return for the company that brought 'The Far Side of the Moon'(2003) and 'Andersen Project'(2007) to LG Arts Center.

“르빠주는  
현대 이미지 연극의  
연금술사다.”

가덕민, 영국

9.17 thu —  
9.19 sat

weekdays 8pm  
sat 2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95분, 휴식 없음  
Duration  
95mins.  
without an interval

불어,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French &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 Christian Ruvolo

##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 Sabine Meyer Trio

CLASSICAL  
MUSIC

### 숨막히는 클라리넷 비르투오지의 마법

‘클라리넷의 여제’라 불리며 클라리넷의 위상을 독주 악기로 격상시킨 현존 최고의 목관 연주자인 자비네 마이어(Sabine Meyer)가 클라리넷 2대와 피아노로 구성된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Sabine Meyer Trio)”로 국내 관객을 찾아온다.

자비네 마이어는 화려한 독주자로서의 빛나는 경력 외에도 헌신적인 실내악 활동을 통해 앙상블 악기로서 클라리넷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특히 한동안 잊혀졌던 클라리넷 족의 악기인 바셋 호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983년 창단한 클라리넷 트리오 앙상블 “트리오 디 클라로네”에서 클라리넷을 위한 레퍼토리 발굴과 다양한 편곡 작업을 해 왔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연주자 볼프강 마이어의 병환으로 “트리오 디 클라로네”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새롭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역시 그 동안 “트리오 디 클라로네”가 피아니스트 칼레 란달루(Kalle Randalu)와 펼쳐온 멘델스존-슈만을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로서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클라리넷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것이다.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는 이미 독일 전역과 런던 등에서 갈채를 받은 바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멘델스존이 클라리넷, 바셋 호른, 피아노라는 보기 드문 조합을 위해 쓴 두 곡의 콘체르트슈튀크(Konzertstück, 작은 협주곡)를 중심으로, 슈만의 클라리넷 명곡인 환상소곡집(Fantasiestücke, Op.73)과 자주 들을 수 없는 브루흐의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 등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다양한 클라리넷 명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진면목을 확인할 이번 공연은 현존 최고의 클라리넷 명인기와 함께 노련한 연주자들의 세밀하고 조화로운 앙상블을 보다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Unanimously acclaimed as the greatest clarinetist of our time, Sabine Meyer brings her trio to the Korean audience in September. Teamed up with another virtuoso clarinetist & her husband Reiner Wehle, and their regular piano partner Kalle Randalu, Sabine Meyer will make the audience discover and attracted to the versatility of the instrument in the intimate chamber music program of Mendelssohn, Schumann and Bruch!

“한여름 청량음료를 마신 것 같은 시원함!”

인터뷰드

“관객이 열렬한 박수를 쏟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숨막히는 비르투오지의 마법”

슈투트가르트 차이퐁



# 안네 소피 폰 오터 & 카밀라 킬링

# Anne Sofie von Otter & Camilla Tilling



시공을 초월한 스웨덴 여제(女帝)들의 흥미로운 음악적 만남



© Richard Dumas



체칠리아 바르톨리과 함께 우리 시대 최정상 메조 소프라노로 손꼽히는 안네 소피 폰 오터(Anne Sofie von Otter)가 7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 폰 오터는 자신의 모국인 스웨덴 출신의 젊은 소프라노 카밀라 킬링(Camilla Tilling)과 함께 국내에서 보기 드문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우아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 자연스러운 디션에 품격 있는 무대 매너까지 두루 갖춘 안네 소피 폰 오터는 '무대 위 디바는 소프라노'라는 공식을 깨고 메조 소프라노의 전성시대를 이끌며 지난 3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데뷔 이래 가디너, 아바도, 볼레즈 등 정상급 지휘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폰 오터는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완벽히 소화함과 동시에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팝과 재즈를 부를 정도로 도전적이고 자유분방하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상영되었던 영화 <마지막 4중주(A Late Quartet)>에도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가곡과 샹송을 멋스럽게 소화한 음반 <Douce France>의 성공으로 변치 않는 인기를 실감케 했다. 폰 오터와 함께 호흡을 맞출 카밀라 킬링은 사이먼 래틀 지휘로 베를린 필과 극적 요소가 가미된 화제의 <마태 수난곡>에 출연하는 등 유럽 주요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웨덴의 '스타 소프라노'다.

이번 무대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휩쓸며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렸던 전설적인 소프라노 예니 린드(Jenny Lind, 1820-1887) 헌정 공연으로 꾸며진다. 두 스웨덴 성악가는 안데르센의 연인이자 멘델스존, 쇼팽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흠모했던 린드에게 헌정됐거나 그녀가 불렀던 노래, 스웨덴 민요 등을 복구의 감성을 듬뿍 담아 들려줄 예정이다. 스웨덴이 가장 사랑하는 과거와 현재의 음악 여제(女帝)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북유럽 어느 호숫가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듯 아름답고 청명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Anne Sofie von Otter, one of the greatest mezzo sopranos today, will return to Korea in 7 years with her compatriot Swedish soprano Camilla Tilling and pianist Julius Drake. They will bring an elaborated program consisting of Mendelssohn, Schumann, and Swedish folk songs that pay tribute to the legendary Swedish opera singer Jenny Lind of the 19th century, who was widely known as the 'Swedish Nightingale,' and whose work is understandably deeply rooted in both singers' hearts. Von Otter's exquisite artistry will shine again in this beautiful program accompanied by another Swedish star singer.

“안네 소피 폰 오터는 섬세한 해석의 본보기다. 그녀의 색채감 있는 보이스와 신중하게 조절하는 다이내믹, 속세를 초월한 우아한 가사에 딱 맞는 벨벳 톤은 더할 나위 없이 황홀한 무대를 만들어 낸다.”

뉴욕 타임즈

현대무용 프로젝트  
 <푸가> (가제)

Contemporary Dance  
 Project 'Fugue: The  
 Polyphony of the Bodies'



움직임으로 확장된  
 규칙과 조화, 균형의 음악  
 푸가, 이제 눈으로 느낀다!



© LEE Woon-Sik

LG아트센터가 창조적인 안무가 그리고 최고의 스타 무용수들과 함께 음악을 테마로 한 새로운 현대무용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이번에 선보일 <푸가 Fugue: The Polyphony of the Bodies>(가제)는 다성 음악(polyphony)의 가장 완전한 형식으로서 J.S. 바흐에서부터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말러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발전되고 재발견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푸가'를 테마로 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다. 가장 패셔너블한 작곡 양식으로서 바로크 시대를 풍미했던 푸가는 치밀하고 탄탄한 음악적 구조, 그 다층적인 면이 품고 있는 풍부함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비단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안무가들에게 많은 창작의 영감을 주고 있다. 나초 두아토,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 윌리엄 포사이드, 한스 반 마넨, 마기 마랭, 웨인 맥그리거 등 이 시대 안무의 대가들이 저마다 푸가를 테마로 하거나 푸가 형식의 곡에 바탕을 둔 작품들을 발표하며 움직임으로 음악을 듣고 보는 즐거운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해왔다. 이번에 우리를 보다 깊이 있는 음악과 춤의 세계로 안내할 사람은 바로 안무가 정영두이다. 그 동안 <제 7의 인간>(2010), <먼저 생각하는 자 - 프로메테우스의 불>(2012)와 같은 작품에서 몸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로부터 얻어낸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냈었던 정영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이번 작품을 통해 음악을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움직임을 바탕으로 그 자체로 순수하고도 완전한 몸의 미학을 펼쳐 보일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작품을 만들며 지평을 넓혀온 정영두의 3년만의 무대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이번 공연은, 푸가라는 음악이 지닌 규칙성과 조화로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몸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정교한 안무를 통해 더욱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할 것이다.

This piece is an LG Arts Center production that fuels inspiration taken from music in order to create a new dance work. 'Fugue: The Polyphony of the Bodies' is a contemporary dance project in which the polyphonic musical form enriches idioms and styles of dance. With its restrained line, simplistic harmony and infinite variety of formal scheme, fugue has attracted composers of several centuries, and its attraction now spans the genre of contemporary dance. Inspired by the music, choreographer JUNG Young-Doo will interweave his pure movements in the fugal style, and this polyphony of the bodies will be played by the most compelling dance artists in Korea.

10.9 fri —  
 10.11 sun

fri 7pm  
 weekend 3pm

R 60,000  
 S 50,000  
 A 30,000

제작 LG아트센터  
 Produced by LG Arts Center

출연 무용수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Flavio Colker

**브라질,  
데보라 콜커 무용단  
<Mix>**

**Companhia de  
Dança Deborah  
Colker 'Mix'**



**브라질 축구보다  
현란하고, 짜릿한 춤을 만나라!**

브라질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안무가 데보라 콜커가 드디어 한국을 찾는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안무가 데보라 콜커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피아니스트, 배구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후 현대무용과 사랑에 빠져 무용 단체에 들어가 춤을 배우는 한편, TV,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무브먼트 디렉터'로 활약하면서 리오 데 자네이루의 카니발 연출을 맡기도 하였다. '몸'을 쓰는 것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그녀는 1994년, 자신의 이름을 건 무용단을 창단하여 그녀의 모든 재능을 결합하여 화려하고 정열적인 작품들을 창작해 오고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Mix>는 2001년 브라질인으로서 최초로 영국 최고 권위의 공연예술상인 올리비에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용계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던, 그녀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다. 총 7개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만든 <Mix>의 1부는 엘비스 프레슬리, 롤링 스톤즈, 도나 썸머 등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세계의 러브 송들이 흐르는 가운데 무용수들이 사랑의 이중성(매혹과 혐오감)을 23개의 파드되로 선보이는 장면이 압권이다. 또 2부에서는 무용수들이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6.6미터의 암벽을 작은 돌출부만을 이용해 수직으로 솟아 오르고, 점프하는 등 육체적 위험을 감수하며 춤과 스포츠의 경계에서 놀라운 감흥을 불러일으켜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Mix>의 커다란 성공으로 콜커는 태양의 서커스 쇼 <Ovo(Egg)>의 연출 및 안무가로 발탁되었으며 이 작품은 2009년 캐나다 몬트리올 초연 이후 전세계 200여 만 관객을 매료시켜왔다. 2014년 드쿠플레 무용단의 유쾌한 에너지를 기억하는 관객은 물론, 잠깐이라도 행복지수를 높이고 싶은 당신이라면, 데보라 콜커의 이 역동적이고 치열하면서도 짜릿한 춤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자.

Deborah Colker, the world renowned Brazilian dancer and choreographer, comes to Korea for the first time with her company of "exceptional" dancers. Colker's work is known across the world for the incredible skill, physically daring moves and athleticism which leave audiences astounded, exhilarated and entertained. 'Mix', her signature production that won her the Lawrence Olivier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Dance in 2001, shows her choreographic style with explosive energy which everyone will enjoy, and will deliver the same level of excitement that we get from watching the Brazilian football team play.

**“서커스의 무모함,  
발레의 표현력,  
현대무용의 자유로움을  
한데 섞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뉴욕 타임즈

**10.23** fri —  
**10.24** sat

fri 8pm  
sat 4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85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85mins. incl. an interval



# 에벤 콰르텟

# Quatuor Ebène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열려있는 현악4중주단



© Julien Mignot

“어느 때고 재즈 밴드로 변모할 수 있는 현악4중주단!”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수식어가 말해주듯, 현재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자유분방한 현악4중주단으로 손꼽히는 에벤 콰르텟(Quatuor Ebène)이 2009년 이후 6년만에 내한한다.

1999년 창단되어 2004년 세계적 권위의 독일 ARD콩쿠르에서 현악4중주 1위를 포함하여 관객상 등 다섯 개 부문을 휩쓸며 음악계에 등장한 에벤 콰르텟은 버진 클래식 데뷔 음반인 라벨, 드뷔시, 포레 현악4중주가 나오자마자 독일 ECHO 상을 비롯하여 2009 그라모폰상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음반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음악계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에벤 콰르텟이 단순히 장래가 촉망 받는 앙상블을 넘어 오늘날 가장 앞서 나가는 4중주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뿐 아니라 독창적으로 편곡한 재즈, 영화음악, 팝 등을 열정을 다해 연주하면서 현악4중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 다재다능함에 있다. 특히 영화 <펍 픽션>의 메인 테마와 재즈, 탱고, 비틀즈의 명곡 등을 직접 편곡하여 2010년 발매한 <픽션(Fiction)>은 이들의 편견 없이 활짝 열려있는 마인드와 젊음이 가득한 자유로움, 그리고 음악적 창의력이 결합된 결과물로서 평단과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ECHO상을 거머쥔 바 있다.

에벤 콰르텟의 이번 공연은 바로 이러한 진지하면서도 유연한 면모를 흥미롭게 보여줄 예정이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연주할 1부에서는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다루는 에벤의 탁월한 집중력을, 존 콜트레인, 피아졸라 등의 명곡을 4중주 연주로 편곡하여 들려주는 2부에서는 이들의 번뜩이는 음악적 재능을 확인하는 가장 짜릿한 현악4중주 공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Praised as “a string quartet that can easily morph into a jazz band,” by the New York Times, Quatuor Ebène stands unique in today’s classical music world as the most exciting and creative chamber music group. Their second concert in Korea will feature their versatility crossing the musical boundaries in the mixed program of Mozart, Beethoven AND jazz improvisations! Audiences will appreciate the unusual level of energy and passion this young quartet will bring in full force!

“<픽션>은 독창성과 열정의 승리다. 극소수의 앙상블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니, 오로지 극소수만이 시도하길 바란다.”

BBC

- \* 2014 BBC뮤직 어워드 ‘베스트 실내악 음반’ 수상
- \* 2010 ECHO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 음반(20-21세기)’ 수상
- \* 2009 그라모폰상 ‘올해의 음반’ 수상

프로그램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138
- 베토벤 현악4중주 제 14번 Op.131
- 재즈 즉흥(존 콜트레인 Giant Steps, 조 자비눌 In a silent way, 피아졸라 Libertango 등)

# 김광보 연출 〈살짝 넘어갔다가 언어맞았다〉

# 'I was punched for sticking out slightly' directed by KIM Kwang-Bo



어느 날,  
선이 하나 그어졌다



© SHIN Mi-Hyun

2014년 LG아트센터와 첫 호흡을 맞추었던 헨릭 입센의 <사회의 기둥들>을 통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던 연출가 김광보가 2015년 또 한편의 신작으로 LG아트센터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에 함께 할 작품은 일본의 인기 드라마 <도쿄 타워>, <로스 타임 라이프>, <사이토씨> 등의 각본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작가 쓰치다 히데오(土田英生)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살짝 넘어갔다가 언어맞았다>이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제목의 이번 작품은 교도소를 배경으로 8명의 남자 배우들이 출연한다.

경범죄 상습범들을 가두는 어느 교도소, 6명의 죄수와 2명의 간수들은 어느 날 장난처럼 교도소 내에 하나의 선을 긋고 국경을 나누는데, 생각지도 않게 생긴 이 선 하나로 인해 교도소 분위기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치적, 사회적인 시스템을 운운하기 전에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싶었다는 작가 쓰치다 히데오의 말처럼,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통해 변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코믹하지만 신랄하게 그려내면서 동시에 인간 관계의 현실과 정체성, 태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고전부터 현대 희곡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그 속에 관통하는 통시성(通時性)에 주목해오고 있는 연출가 김광보는 이번 작품에서도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생한 시대의 모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여덟 명의 캐릭터가 주는 팽팽한 긴장감과 에너지를 통해 그간 여러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섬세하고 치밀한 인물간의 심리 묘사를 보는 쾌감 역시 맛보게 할 것이다.

KIM Kwang-Bo, one of the most sought-after directors in Korea, returns with a new production following the successful collaboration with LG Arts Center on Henrik Ibsen's 'Pillars of Society' in 2014. KIM now turns his attention to 'I was punched for sticking out slightly', the play written by Japanese playwright TSUCHIDA Hideo who earned fame for writing TV dramas 'Tokyo Tower' and 'Saito-san'. In 'I was punched.....' six prison mates and two guards draw a line on the prison compounds as a prank, which puts the prison into uncontrollable situation afterwards. It illustrates in a comical yet acerbic style, the gradual changes that take place in the state of minds of these eight characters and ultimately allows us to reflect on the stark realities of human relationships we maintain. Filled with tension and heightened energy between the eight characters, KIM's new production will reaffirm his abilities in meticulous characterization and detailed psychological descriptions.

11.5 thu –  
11.18 wed

tue-fri 8pm  
weekend  
3pm & 7pm

R 50,000  
S 40,000  
A 30,000

Performed in Korean

제작 LG아트센터  
Produced by LG Arts Center



**무라카미 하루키 작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해변의 카프카〉**

**Haruki MURAKAMI's  
'Kafka on the Shore'  
by Yukio NINAGAWA**



**니나가와 연출의  
마법으로 빚어낸  
하루키 문학의 환상 세계**

작년 봄, <무사시>를 통해 막이 오른 뒤 3분 안에 관객들을 사로잡는 자신의 연출 마법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던 세계적인 연극 거장 니나가와 유키오(蜷川幸雄)가 또 한편의 걸작을 들고 돌아온다.

이번에 내한하는 <해변의 카프카>는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로 손꼽히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2년에 발표한 소설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15세 소년 다무라 카프카가 끊임없이 방황하며 삶과 죽음, 어른과 아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하루키가 최대의 문학적 역량을 기울여 탄생시켰다는 이 마술적 리얼리즘의 세계를 니나가와는 달인의 경지에 오른 연출력을 과시하듯 넓고도 깊이 있게 무대 위에 펼쳐낸다. 23개에 달하는 거대한 투명 아크릴 상자 세트를 이용해 일본 도쿄에서 시코쿠 섬의 다카마쓰에 이르는 소설의 지리적인 이동을 충실히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장서들이 가득히 들어찬 도서관과 깊은 숲속과 같은 신비로운 장소까지도 환상적으로 구현해낸 무대는 그 역동적이고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보는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고자 하는 주인공 카프카 역으로 후루하타 니노(古畑新之), 슬픈 과거에 갇혀버린 아름다운 여인 사에키 역의 미야자와 리에(宮沢りえ),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도서관 사서 오시마 역의 후지키 나오히토(藤木直人) 등 일본의 TV드라마와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배우진들이 하루키 특유의 감성과 유머가 넘치는 캐릭터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니나가와 유키오,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두 거장이 만난 만큼 <해변의 카프카>는 문학과 연극적인 판타지가 어우러져 경이로움을 빚어내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Kafka on the shore' is an internationally bestselling novel by Japan's most widely read and highly regarded author, Haruki MURAKAMI. The book features a 15-year-old boy named Kafka, who runs away from his home in Tokyo, to escape a troublesome father and dark prophecy which he learns of. Kafka's story soon meets with the elderly visage of Nakata, whose hunt for a lost cat takes him on the road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With its blend of magical realism, suspense, humor and sex, it was long regarded a great challenge for anyone who attempt to dramatize this novel. Now, celebrated director Yukio NINAGAWA realizes his long-held ambition to stage it. Using a series of multi-layered sets, NINAGAWA's magnificently visualized staging of this epic will fascinate the audience.

**11.24** tue —  
**11.28** sat

weekdays 7:30pm  
sat 2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3시간 30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3hrs 30mins.  
incl. an interval

관람 가능 연령  
15세 이상  
Not recommended  
for under 15

일본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Japanese with  
Korean subtitles

Produced by Saitama Arts Foundation,  
Tokyo Broadcasting System Television  
Inc and HoriPro Inc  
Co-produced by Japan Foundation  
Official Airline: ANA





© Marco Borggreve

## 파벨 하스 콰르텟

## Pavel Haas Quartet

CLASSICAL  
MUSIC

### 이제는 파벨 하스 콰르텟의 시대!

하겐 콰르텟,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등의 뒤를 잇는 차세대 현악4중주단 중 현재 음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돋보이는 현악4중주단인 파벨 하스 콰르텟(Pavel Haas Quartet)이 2015년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2002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창단, 2005년 이탈리아의 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연주활동을 시작한 파벨 하스 콰르텟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올해의 음반'을 포함하여 3회의 그라모폰상과 황금 디아파종상, 미뎀 클래식 어워드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쓰며 일찌감치 위대한 현악4중주단의 반열에 오를 발판을 굳건히 하고 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정확한 테크닉과 끊어오르는 열정, 세밀한 뉘앙스까지 놓치지 않는 치밀한 앙상블로 "더 이상 훌륭할 수 없을 것이다"(BBC-야나체크/하스), "과거 명연의 후광이 아닌 그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연주"(그라모폰지-드보르작), "주저 없이 들어야 할 결정반"(디아파종-프로코피예프) 등 내놓는 음반마다 평단의 열렬한 찬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모두 30대의 젊은 체코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1944년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체코 작곡가 파벨 하스(Pavel Haas, 1899-1944)의 이름을 단체명으로 정하고 그가 남긴 세 곡의 현악4중주와 야나체크의 현악4중주 두 곡을 가장 먼저 녹음했으며, 2011년에 내놓은 드보르작 현악4중주는 '올해의 음반'으로 등극하는 등 '실내악 강국'인 자국 음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완벽에 가까운 연주로 여실히 보여주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의 첫 내한공연도 이들의 강점인 체코 음악으로 꾸며진다. 역대급 명연주로 인정받은 이들의 드보르작의 '아메리카' 4중주를 포함하여, 한 여인을 향한 노(老) 야나체크의 끊어오르는 연모의 정을 강렬하게 표현한 '비밀 편지' 4중주, 그리고 슐호프의 현악4중주 등을 통해 스페타나, 탈리히 현악4중주단 등에 이어 체코가 배출한 또 하나의 걸출한 현악4중주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Pavel Haas Quartet, one of the most prominent string quartets to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unveils its widely-acclaimed talents to the Korean audience in June. A three-time winner of the Gramophone Awards including 'Recording of the Year' for its 2011 album that features Dvorak's string quartets, the Pavel Haas Quartet has garnered widespread critical acclaim such as "simply matchless today." The quartet will perform works composed by their Czech compatriots, Schulhoff, Dvorak and Janacek during their first concert in Korea.

“파벨 하스의 ‘아메리카’ 4중주 해석은 이 곡의 가장 위대한 연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레퍼토리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들을 따라갈 연주가 없다.”

선데이 타임즈, 영국

# 기획공연 시즌 패키지 CoMPAS15 Packages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주옥같은 공연들,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나는 방법은 역시 패키지입니다.

Become an LG Arts Center subscriber and enjoy exclusive benefits!  
It's a great chance to save up to 40% to see the world's best performances.

패키지 티켓 오픈 2015. 1. 20(화) 9am / **Package Tickets on Sale** Tue, Jan 20, 2015 9am

## 패키지 혜택

- 최고 40%, 최대 528,500원 할인 혜택!
- 패키지 카드 발급
- 패키지 카드 제시 시,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더블 패키지 구매자에게 '프로그램북 교환권' 3매 증정

###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동행인 할인'

패키지 구매자가 추가로 개별 티켓을 구매할 경우,  
구매 공연 대상 1인 2매까지 20% 할인 제공  
(1. 20(화)-1. 23(금)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전화 예매만 가능하며, 개별 티켓 오픈 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 패키지 이용방법

- 인터넷, 전화 및 방문 예매가 가능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예매 Inquiry & Booking

- [www.lgart.com](http://www.lgart.com)
- 매표소 운영 시간: 평일 9am~6pm(주말, 공휴일 휴무)
- **Box Office:** Weekdays 9am~6pm  
(Off on weekends, national holidays)
- **Tel.** +82(2) 2005-0114 / **Fax.** +82(2) 2005-1538  
**E-mail.** arts2005@lgart.com

## How to purchase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call,  
online or at the box office.
- Purchased package tickets cannot be refunded  
nor altered after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ograms.

## When to purchase

- **Theatre Package:** ~until Wed, May 13, 2015
- **Dance, Double Packages:** ~until Fri, April 3, 2015
- **Classical Music Package:** ~until Thu, March 12,  
2015
- **Free Choice Packages:** ~until Thu, Oct 8, 2015

연극  
패키지  
Theatre  
Package

예매 기간:  
2015.  
1. 20(화) —  
5. 13(수)

5편 모두 선택 시, R 25% / S 20% / A 20% 할인!

5.14(목)-30(토)	슬라바 풀루닌의 <스노우쇼>
6.11(목)-14(일)	오피스 어드벤처 <블램!>
9.17(목)-19(토)	로베르 르빠주 <바늘과 아편>
11.5(목)-18(수)	김광보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11.24(화)-28(토)	니나가와 유키오 <해변의 카프카>

무용  
패키지  
Dance  
Package

예매 기간:  
2015.  
1. 20(화) —  
4. 3(금)

R 25% / S 20% / A 20% 할인!

• 4편 모두 선택	
4.4(토)-5(일)	LDP 무용단 신작
9.11(금)-12(토)	클라우드 게이트 <Rice>
10.9(금)-11(일)	현대무용 프로젝트 <푸가>
10.23(금)-24(토)	데보라 콜커 무용단 <Mix>

+

• 로사스 무용단 공연 2편 중 1편 이상 선택

5.7(목)	로사스 무용단 <로사스 댄스 로사스>
5.9(토)-10(일)	로사스 무용단 <드러밍>

더블  
패키지  
Double  
Package

예매 기간:  
2015.  
1. 20(화) —  
4. 3(금)

연극, 무용 총 11편 모두 관람 시 전 등급 40% 할인!

(더블 패키지 구매자에게 '프로그램북 교환권' 3매 증정,  
패키지 첫 공연 관람 시 제공)

Save up to 308,000 won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11 programs.

R 40%	770,000 ⇒ 462,000 won
S 40%	580,000 ⇒ 348,000 won
A 40%	380,000 ⇒ 228,000 won

**클래식 패키지**  
Classical Music Package

예매 기간:  
2015.  
1. 20(화) —  
3. 12(목)

6편 모두 선택 시, R 25% / S 20% / A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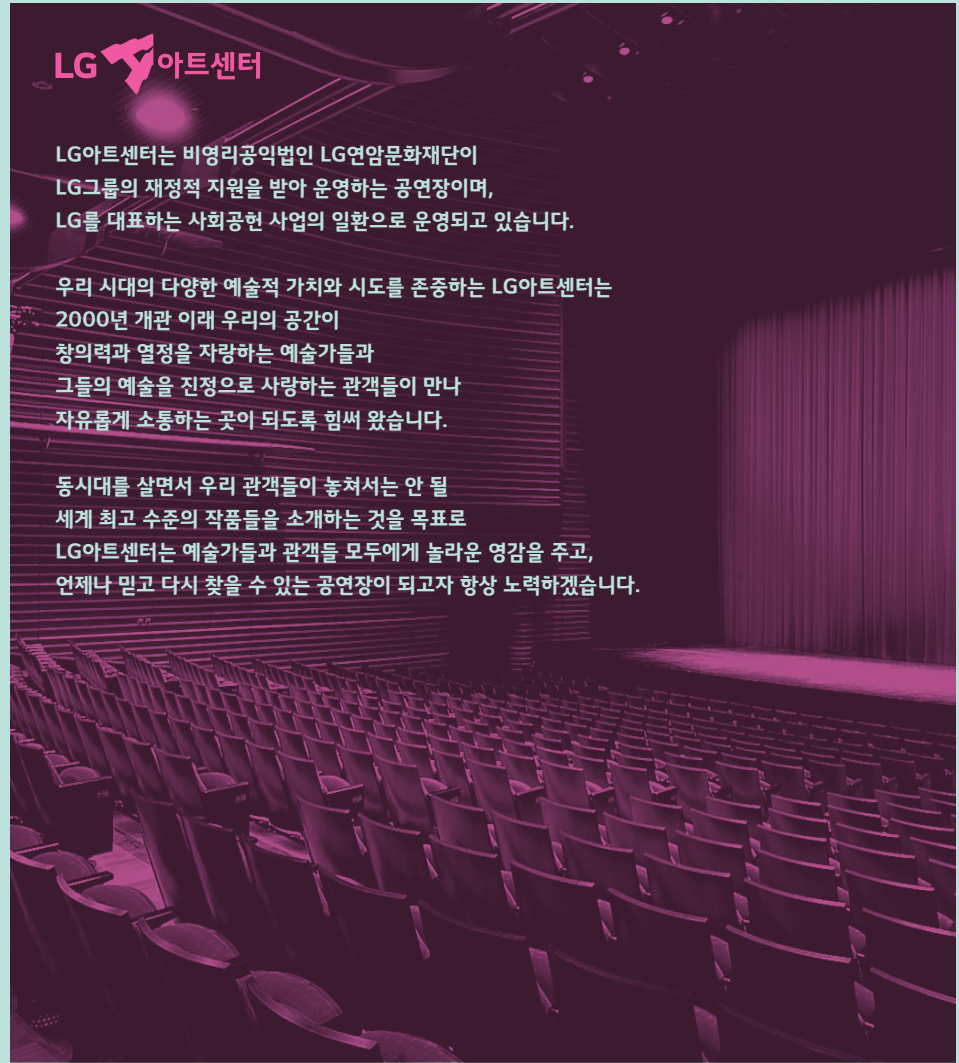
3.13(금)	더 식스틴
6.16(화)	파벨 하스 콰르텟
6.21(일)	이모젠 쿠퍼
9.22(화)	자비네 마이어의 트리오 디 클라로네
10.1(목)	안네 소피 폰 오터 & 카밀라 킬링
10.29(목)	에벤 콰르텟

**자유 패키지**  
Free Choice Package

예매 기간:  
2015.  
1. 20(화) —  
10. 8(목)

2015년 모든 기획공연의 동일 좌석등급 대상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10편 이상 - 35%	35% for 10 or more
7편 이상 - 25%	25% for 7 or more
5편 이상 - 15%	15% for 5 or more



**LG아트센터**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이며,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하는 LG아트센터는 2000년 개관 이래 우리의 공간이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프로그램북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쉽게 가능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티켓 예매와 취소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날짜 변경이나 좌석 변경도 쉽게 가능합니다.



4

정보는 빠르게,  
관람일을 잊지 않게!

LG아트센터의 공연 정보를 e-mail과 우편으로  
제공해 드리며, 사전 예매한 공연 내역은  
관람 3일 전에 문자와 e-mail로 보내드립니다.

##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 레스토랑 영업 시간과 제휴 혜택은 각 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ASIAN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11:30-14:30 / 17:3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11:30-15:00 / 17:30-22:0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CAFE

패키지 카드 제시 시,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WESTERN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0:30-22:30  
(구정, 추석 당일 휴무)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4:00(일요일 휴무)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일주일 이내 티켓 제시 시)

쉐 조세피나  
캐주얼 프렌치 스테이크 &  
부야베스

02-3288-3700  
11:30-14:30 / 17:30-22:00  
특가 3만원 세트 제공  
(샐러드+수프+  
메인 "스테이크 or 생선")

매드 포 갈릭 강남점  
이탈리안 와인 비스트로

02-562-6977  
11:30-22:00  
2만원 이상 주문 시,  
갈릭 스노잉 피자 무료 제공  
(티켓 날짜 무관,  
단, 12/24, 25 사용 불가)

book design: 2x2(LEE Ju-Heon)